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TRANGEWORLDS TRAVEL AGENCY

가제 : 이상한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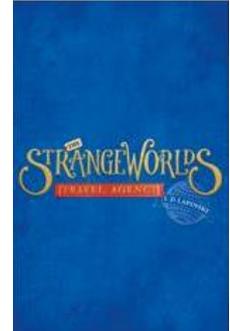
저자 : L.D. Lapinsky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모험(9세 이상)



* 새로운 모던 클래식의 완성!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에 별난 유머와 굳건한 여주인공이 결합된 데뷔 3부작 시리즈

지루해 보일 만큼 고요한 마을로 이사온 플릭 허드슨은 먼지가 잔뜩 낀 낡은 여행사를 발견한다. '이상한 세상 여행사'라는 이름도 이상하고, 내부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곳 마냥 짐가방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것도 이상한 이곳에 왜 자꾸 관심이 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플릭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그 때만해도 그냥 방치된 것 같은 그 큼직한 가방들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플릭은 이 희한한 여행사의 운영자인 조너선을 만나면서 간판에 적힌 여행사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 먼지 쌓인 가방들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마법 가방이었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건 플릭 혼자만이 아니었다. 조너선은 열두 살 짜리 꼬마인 줄만 알았던 플릭이 자신의 마법 돋보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마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플릭이 그가 이 여행사를 운영해온 이유, 가방을 열고 이상한 세계 곳곳을 계속 여행해온 목적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조너선은 플릭에게 자신과 함께 신비한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마법 운운하는 조너선의 이야기를 믿지 않던 플릭은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가방이 인도하는 세계 속에 가보기로 결심한다.

수정이 나무처럼 빼곡하게 서 있는 숲, 표면이 트램폴린처럼 되어 있어서 살짝 점프하면 붕 떠오르는 신기한 세상, 해변에 으스스한 등대가 서 있는 곳까지, 플릭은 조너선과 함께 어디서도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는 곳을 신나게 여행한다. 그러나 사실 조너선에게는 이렇게 씬 없이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행방을 찾던 조너선은 마법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길한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멀쩡했던 거리가 사라지고, 날씨 패턴이 바뀌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플릭과 함께 '다섯 개의 불빛'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조너선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이미 마법 세상 곳곳에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조너선의 아버지에 관해 알고 있

우리라고 확신한 ‘웍스파크’ 가문의 집이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조너선과 아버지처럼 ‘이상한 세상 협회’의 일원인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져온 마법 세상에 누가, 무엇이 이런 혼란을 일으켰을까? 두 사람의 찾던 답은 플릭이 ‘도둑들’로 알려진 사악한 집단에 납치 당하면서 비로소 드러난다. 플릭을 인질로 데려간 플릭은 조너선에게 다섯 개의 불빛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여행 가방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바로 이 도둑들이 도시에서 야금야금 마법을 빼돌린 바람에 도시 전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들이 일으킨 이 파괴적인 결과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도둑들의 뻔뻔한 요구를 거절한 플릭은 일단 혼자 도망치고 이상한 세상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플릭도 구하고, 마법 세계를 허물어뜨리는 도둑들도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 때, 플릭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좋은 친구인 줄만 알았던 조너선이 자신의 엄청난 마법 능력을 몰래 이용해왔다는 사실이었다. 도시 전체에서 마법의 기운이 빠져나가서 생긴 틈과 균열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지금까지 어떤 마법사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마법 세상을 보는 눈을 플릭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조너선은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버지를 찾는 여행에 슬쩍 활용해 온 것이다. 도둑들을 물리치고 점점 균열되는 마법 세상을 회복시키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 조너선에게 실망한 플릭은 과연 계속 그와 함께 싸울 수 있을까?

도둑들이 감옥처럼 만들어놓은 작은 세상에 홀로 갇힌 플릭은 아직 제대로 느껴본 적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거대한 마법의 힘을 믿고 마법으로 짜놓은 그 세상의 경계를 뚫어 보기로 결심한다. 그 사이, 조너선은 여행 가방들을 마법 세상 곳곳에 숨겨두고 도둑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운 뒤 플릭을 구하러 돌아온다. 그러나 플릭은 놀라운 마법 능력으로 도둑들이 만든 마법을 끊고 홀로 작은 세상에서 달아나는데 성공한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섯 개의 불빛 도시로 되돌아오는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플릭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뒤쫓아온 도둑들의 손아귀에 다시 붙들리고, 도둑들의 대장에게 끌려간다. 도둑 대장 글린은 마법 세계의 균열을 보고 통제할 수 있는 플릭의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들이 이 무너져가는 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바로 그 때, 여행 가방을 든 조너선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 플릭을 풀어주면 가방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도둑들의 관심을 산 조너선은 도시가 무너질 만큼 챙긴 마법을 다시 내놓으면 지금의 이 혼란도 다 되돌릴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달아날 궁리만 할 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망가진 도시에는 관심이 없는 도둑들은 단번에 그 요구를 거부한다. 결국 글린과 도둑들은 조너선이 이끄는 대로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고, 조너선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외딴 섬에 이 악당들을 가두는데 성공한다. 욕심 때문에 자진해서 고립된 도둑들은 과연 도시도 살리고 자신들도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할까? 플릭과 조너선은 다시 좋은 친구가 되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상상력과 판타지, 모험이 가득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L. D. 래핀스키(L. D. Lapinski)는 아동 도서와 스토리텔링에 큰 열정을 가진 작가로 일곱 살 때부터 이야기를 써 왔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HOW FAR WE GO AND HOW FAST

가제 :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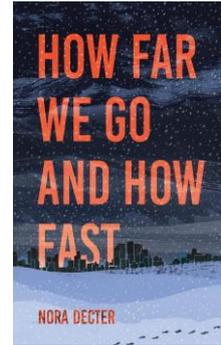
저자 : Nora Decter

출판사: Orca Book Publishers

발행일: 2018년 9월 25일

분량 : 264쪽

장르 : 성장 소설



* 코보 신인 작가상(Kobo Emerging Writer Award) 수상자의 데뷔 소설

* “상실과 구원에 관한 강렬한 소설. 너무나 현실적이고, 슬프고, 가끔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 - 『SOLD』의 작가 패트리샤 맥코믹

* “불완전한 노동계급 가정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따뜻한 이야기” - 「커커스 리뷰」

겨울이면 무서울 정도로 눈이 쌓이는 위니펙에서 이혼한 엄마, 다섯 살 많은 오빠와 사는 줄린에게 유일한 낙은 음악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줄린에게 음악이 주는 위로와 힘을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가르쳐준 오빠 매트가 줄린을 살아 숨쉬게 하는 단 하나의 희망이다. 줄린보다 다섯 살 많은 매트는 아홉 살 때, 기타 하나를 양팔에 들 수 있는 덩치가 되자 베이스기타 연주자였던 아버지로 부터 생애 첫 기타를 선물 받았다. 몇 년 후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는 거의 매일 저녁 주변에 사는 친척들, 친구들과 술에 절어 사는 엄마 덕분에 빨간색 전자 기타도 생겼다. 태닝 살롱을 운영하는 엄마는 술과 노래방 기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 기타를 매고 온 어떤 손님은 엄마 친구들과 함께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노래하다가 그만 기타를 놓고 간 것이다. 줄린은 어쿠스틱 기타로, 전자 기타로 매트가 연주하는 멜로디에 늘 귀를 기울였다. 오빠가 지하실로 내려가 몇 시간이고 꼬박 연주를 할 때면 거의 대부분 그 곁에 앉아 감상하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풍경 속에 빠져들었다. 블루스 기타를 갖고 싶었던 매트는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집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공방에서 직접 기타를 만드는 전문가에게 기타 제작을 의뢰했다. 줄린이 열서너 살 이었던 추운 겨울의 어느 날, 기타가 완성됐으니 찾아가라고 전화가 걸려 왔던 그 날을 줄린은 절대 잊지 못한다. 수화기를 들고 소식을 들은 오빠의 두 눈이 반짝이던 모습, 다급히 코트에 팔을 끼우고 부츠를 즐라 신던 모습도 여전히 생생하다. 늘 그랬듯 줄린은 따라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항상 여동생을 챙기던 오빠는 선뜻 그러자고 했다. 눈 쌓인 시골길을 구불구불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남매는 한쪽씩 나눠 낀 이어폰으로 낡은 위크맨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두 사람을 엮어준 건 철없는 엄마아빠가 유일하게 물려준 것,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기타 제작자가 신중하게 골라 더 신중하게 깎고 다듬어서 만든 블루스 기타를 건넸을 때, 오빠가 마치 갓 태어난 자기 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벅찬 얼굴로 팔을 내밀던 모습도 줄린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저녁을 먹고 가라는 마음씨 좋은 그곳 공방 부부의 권유도 마다하고 그 자리에서 새 기타로 연주에 빠진 오빠를 줄린은 흐뭇한 마음으로 기

다리고 또 기다렸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근처에 오는 막차가 다 끊어졌고, 멀리 고속도로까지 나가서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얼어 붙은 겨울 시골길에 두툼한 스웨터와 스카프는 새로 산 기타에 양보한 채 덜덜 떨면서 걷던 그 밤, 무사히 집에 돌아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셨던 진한 코코아 한 잔, 졸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바로 그 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날의 오빠 나이, 열여섯 살이 된 지금 스물한 살로 그 때처럼 곁에 있어야 할 매트는 사라졌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오빠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현실은 조금씩 졸린을 갉아 먹고 있었다. 오빠와 함께 연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곡과 기타 연주는 혼자서도 계속했지만 도저히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큰 구멍은 음악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

작가는 시처럼, 또는 노래처럼 흘러가는 문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존재를 잃어버린 졸린이 겪는 분노와 혼란을 그린다. 말보다는 멜로디로, 행동보다는 노래로 감정을 표현하는 졸린은 가수를 꿈꾸는 엄마와 기타리스트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크게 실패하고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철거 공사 일을 시작한 아버지에게서 탁월한 작곡 실력을 물려 받은 재능 있는 음악가이지만, 그 빛나는 재능을 처음 일깨워준 오빠의 빈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애지중지하던 블루스 기타 하나만 덜렁 매고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올 것처럼 집을 나선 매트는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졸린은 점점 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든다. 학교 수업을 밥 먹듯이 거르면서도 근처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몰래 청강하기도 하고, 오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위니펙을 떠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근처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맨날 술만 퍼 마시는 엄마에게 대들기도 한다. 작가는 항상 입을 꼭 다문 채 내면을 장식한 슬픔을 어떻게든 혼자서, 음악에만 기대어 감당해보려고 애쓰는 졸린의 노력이 바에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 혼자 가뉘둔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을 가만히 따라간다. 그제야 졸린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상실은 단순히 매트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 사실을 졸린이 내내 외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항구 근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다리 위로 올라간 매트는 해가 질 무렵, 내려오던 길에 그만 추락했다. 경찰은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졸린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사고라는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지, 어쩌서 엄마는 그렇게 쉽게 오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빠의 기타가 낯선 주소지에서 낯선 포장지에 둘둘 싸여 집에 도착했을 때도, 다리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 매트로 최종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졸린의 마음은 굳건했다. 죽음은 오빠와 어울리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작가의 기교 넘치는 표현과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풍경, 홀로 몸부림치는 졸린을 도와주려 애쓰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노력, 그리고 다시 두 발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졸린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울림을 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노라 덱터(Nora Decter)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태어나 요크 대학교에서 영어와 글쓰기를 공부한 뒤 뉴욕 스토니 브룩 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 문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토론토에서 글을 쓰고 있다.